

# 가족원의 돌봄행위에 대한 입원노인의 기대감에 관한 연구

김강미자 · 정여숙(예수간호전문대학)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생리적 변화와 쇠퇴 뿐 아니라 사회적 역할의 변화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녀와 주위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므로 돌보고 보살피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는 그 수에 있어서보다는 질에 있어서의 복잡성에 있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장유유서가 무너지고 세대적 통합구조가 해체현상을 빚고 지금의 노인들은 의지해야 할 증거기준이 없다.(고, 1985)

또한 전통적인 관념속에서 살아 온 노인세대들은 현대에서 관심과 존경 그리고 가족부양 등에 대한 기대치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 구조속에서는 노인이 단독거주를 하고 있을지라도 자식에 대한 기대가 크고 자식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의식이 강한 전통적 문화의 특성에서 노인은 더욱 봉양과 돌봄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김(1983)은 현재 한국 노인들 중에서 과거 관습에 따라 자식에게 효도를 받으려는 기대치가 높는데 자식들은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부모는 소외감, 고독감,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노인이 일상생활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쇠퇴와 만성질병으로 인하여 대부분은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 의존하여 돌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Wasten(1988)은 인간이란 돌봄받고 존경받고 양육되고 이해받고 도움받는 존재라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존성이 증가되는 노인에게는 더욱 수동적이 되고 타율성에 젖어 타인에게 기대지 않으면 안된

다. 윤(1985)은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의존욕구뿐 만 아니라 정서적 의존욕구에 대하여 자녀들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노화와 더불어 증가되는 이를 해결하는데는 특히 가족에게 있다고 하였다.

특별히 가족의 집단성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서구와는 달리 보호자는 다양한 역할을 해내는 간호현장의 구성원이다. 환자가족의 일원인 보호자는 환자의 대변인이자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자이면서 환자를 직접 돌보는 돌봄담당자이다. 또한 전문인과 환자를 연결하는 역할도 한다(조, 1992). 이러한 다양한 돌봄행위를 담당할 가족원에게 노인환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보호와 돌봄과 보살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력이 부족한 노인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일상생활활동에서 자기간호 부분까지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은 대부분 배우자와 가족이다(홍, 1982, 임, 1993, 배와 홍, 1995, 김, 1996). 입원한 노인의 부부중 하나는 의무감에 의해 한 사람의 간병을 일거리로 생각하고 기쁘고 즐겁게 돌봄행위를 하다가도 노인이 쇠퇴한 신체적 한계에 이르면 피곤함과 짜증으로 이어지게 되고 돌봄행위에 소홀함을 초래한다.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직장과 사회활동 등의 참여로 노인환자는 만족한 돌봄행위를 자녀에게 기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노인환자는 가족원에게 돌봄행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가족원은 노인환자를 돌보고 보살피야 하는 상호 개방 체계에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담감이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다소 있으나 입원노인 환자가 가족원의 돌봄행위에 대한 기대감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나 연구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특성이 의존적이고 돌봄과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전통적인 가치관의 입장에서 노인들이 가족원에게 기대하는 돌봄행위의 내용은 어떠한 것들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입원한 노인이 기대하는 돌봄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입원노인을 돌보는 가족원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돌봄실무에서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로서 도움이 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입원노인의 특성과 병적 특성에 따른 가족원의 돌봄행위에 대한 기대감정도를 파악한다.
2. 입원한 노인이 기대하는 돌봄행위의 내용을 순위별로 파악한다.
3. 입원한 노인의 일상생활활동 능력수준에 따른 돌봄행위의 기대감정도를 파악한다.
4. 입원한 노인의 지각하는 가족원과 감정교류와 돌봄행위의 기대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 2. 용어의 정의

- 1) 가족원 - 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보호자로서 보살피고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 2) 돌봄행위 - 돌보이의 명사인 돌봄은 힘써 도와준다, 보호하다, 뒤를 보살펴준다(이웅백, 1988)라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입원노인을 곁에서 보호하고 도와주고 보살피주는 행위로서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통하여 물리적 돌봄행위 8문항, 사회심리적 돌봄행위 8문항으로 구성한 것을 말한다.
- 3) 기대감 - 기대감이란 예기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심정(이희승, 1982)으로 본 연구에서는 입원노인의 보호자인 가족원에게 예기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을 말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돌봄행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일부 지역의 종합병원에 입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거나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II. 문헌고찰

모든 영장류가 어린 새끼를 보호, 양육하지만 늙은 세대에게 높은 지위를 배정하여 존중하고 보살피는 영장류는 인간 이외에는 없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노인을 돌보는 행위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짓는 인간고유의 특성이다(조, 1992). 인간은 본래 타인에 대한 관심과 존경을 바탕으로 타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을 돕고 지지하고자 하는 이타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인간 속성이 발휘되는 과정의 행위가 돌봄이다(Leininger, 1981).

최(1990)의 연구에서 돌봄은 출생으로부터 임종/사망에 이르는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을 거쳐 나타나는 현상이며, 삶의 원동력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의 과정 어느 한 순간에도 돌봄이 나타나지 않는 순간은 없었으며 인간의 고비마다 돌봄의 양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태어남, 죽음, 늙음, 병듦의 고비를 중심으로 한 돌봄의 상황이 더욱 뚜렷하였으며 영역 분석은 돌봄제공자, 돌봄의 대상자 및 돌봄자체로 나타났다.

Leininger(1981)는 돌봄을 생을 영위해 나가는데 더 나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해 타인을 도와주며 지지하거나 촉진시키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고, Beivis(1981)는 돌봄이란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는 감정으로서 상호 자아실현과 친교를 증가시키며 삶에 대하여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며 격려하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돌봄의 구성요소로 관심, 온정/따뜻함, 도움/수발, 성의, 함께함, 가르침, 위로, 부드러움으로 범주화하였고(김과 최, 1990), 돌봄은 인간요구를 충족시키는 돌봄요소로 구성되는데 그중 하나는 지지적이고 보호적이고 교정적 정신(corrective mental), 신체 사회 문화, 영적 환경제공이라고 하였다.(Wasten, 1988)

번 등(1989)이 보호자가 포함된 일반인을 대상으로 ethnonursing방법으로 돌봄개념의 의미를 파악한 결과 돌봄개념의 의미로 사랑, 도움, 공감, 편안, 온정, 지지, 관심, 충족, 건강이었고, 이(1996)의 돌봄의 개념분석연구에서 돌봄의 정의적 속성은 1) 다른 사람을 돕는 일련의 활동 2) 관심과 정성 3) 대인관계 4)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과정 등이라고 했고, 돌봄의 선행 요인으로 1) 다른 사람의 도움의 필요성에 대한 지각 2) 다른 사람을 돕고자하는 도덕적, 인지적 동기가 있다고 하였다.

간호학에서의 돌봄, 지지, 간호상황에 관한 내용에서 지지하다, 보조하다, 봉사하다, 옹호하다 등의 동사는 상대방의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러한 동사가 자체로의 의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돕는 행위자가 그러한 동사가 구체화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이와 장, 1995)

고(1995)의 노인의 민간돌봄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양환경을 조성하는 돌봄은 노인의 수발로서 동거하기, 방문하기, 함께하기 등이고, 보호를 위한 돌봄은 수발, 음식, 간식제공과 편의제공, 기력보호, 몸의 청결도도 그리고 보온하기 등이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돌봄은 존중으로서 공대하기, 순종하기, 삼가기 등이고, 지지는 감각기능보조(안경, 보청기)와 용돈이었고, 정을 표현하는 돌봄의 내용을 다정한 대면, 다정한 신체적 접촉, 생일 환갑, 다정한 호칭 등으로 나타났다. 조(1990)는 애정적 결속이 노인의 인생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가족이 애정적이고 정서적인 부양의 원천임을 입증하였고, Medley(1976)는 부양 만족이 개인의 기대와 충족도 여부에 의해 정해지고 개인의 기대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는 준거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한과 김, 1994 재인용)

김과 김(1996)은 노인환자의 의존성과 가족지지와의 관계에서 노인환자는 아프면 가족이나 친척이 내 옆에 있도록 하고 싶다. 가족이나 친척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으면 한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가까이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순으로 사회심리적 의존성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Blenkner(1965)는 노인의 의존성을 1) 경제적 의존성(연금, 보험, 용돈) 2) 신체적 의존성(퇴화된 신체기능에 대한 보완) 3) 정신능력의 의존성(기억, 판단능력에 대한 도움) 4) 사회적 의존성(사회적 접촉의 추구) 5) 심리적 의존성(감정적 유대, 안락감)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때 앞의 4가지 의존성은 정부, 사회보호기관, 전문가 등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나, 심리적 의존성이나 감정적 안정의 문제는 그 의존대상이 가족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이러한 다섯가지 의존성을 모두 가족에게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윤, 1985재인용)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자녀에게 더욱 의존하고 심리적 경제적 자원이 될 수 있는 배우자와의 사별은 특히 가족에 대한 의존감과 기대가 증가된다(한과 김,

1994). 노인에게는 신체, 심리, 사회적 변화에 따른 노인 특유의 요구가 있고 이 요구의 충족을 위해 의존성이 나타나고, 특히 질병으로 입원한 노인의 경우에는 건강문제로 의존성이 더욱 증가한다(남, 1982). 이러한 의존성이 노부모에 대한 가족의 부양 책임이 있는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최, 1994)

그러므로 간호사는 노인이 일상생활활동을 타인에게 의존하게 될 때 대상자와 보호자 모두가 감정을 안전하게 환기시킬 수 있는 보상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김, 1992). 노인과 같이 심심기능의 예비력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불안과 불만의 지속으로 인하여 심신의 기능이 더욱 저하되기 쉬우므로 간호에서는 노인의 마음을 지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노인간호의 주요 목표는 노인이 노화와 장애를 가졌다 할 지라도 일상생활이 영위되도록 할 것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인의 생활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원조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조, 1989)

홍(1982)의 입원한 노인의 간호기대에 대한 연구에서 간호를 받고 싶은 대상과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보살핌을 받고 싶은 대상이 가족이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노인들은 현대사회의 변화에 의한 가족관을 수용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가족으로부터 보호받고 자녀들에게 양질의 효도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Leininger(1981)는 돌봄행위와 과정을 민속학적 관점, 전문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간호지식체 발전을 위해서는 이 두 차원의 돌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상의 문헌고찰에서 노인에 대한 돌봄의 개념이나 돌봄의 구성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었으나 노인환자가 피돌봄자의 입장에서 돌봄담당자에 대한 구체적인 돌봄행위에 대한 기대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입원노인이 피돌봄자로서 가족원들의 돌봄행위에 대한 기대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주시내 2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65세이상의 노인환자로서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에 의하여 임의추출한 10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 1) 곁에서 돌보는 보호자가 있는 노인환자
- 2)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면담에 응할 수 있는 자
- 3)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자

## 3. 연구도구

본 연구대상자가 가족원의 돌봄행위에 대한 기대감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과 노인환자의 병적 특성, 일상생활활동 능력수준, 가족원과의 감정교류정도, 돌봄행위의 내용별 순위, 돌봄행위에 대한 기대감 정도를 측정하였다.

### 1) 노인환자의 일상생활활동 능력수준

이 도구는 Rameizl(1983)의 CADET (Communication, Ambulation, Daily Living, Elimination, Transfer)와 Barthel Index(Mc Dowel, 1987)을 이와 서(1994)가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는 14문항의 3점척도로서 점수가 높을 수록 독립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서(1994)의 만성환자의 가족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alpha = .96$ 으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7$ 이었다.

### 2) 가족원과의 감정교류정도

본 연구에서 감정교류정도는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Archbold와 Stewart(1986)의 상호성 도구를 양(1995)이 번역하여 만성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에게 이용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5문항의 4점척도로서 점수가 높으면 감정교류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분석시에는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1점에서 2점 미만을 낮음, 2점에서 3점 미만을 보통, 3점 이상 4점까지를 높음으로 분류하였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양(1995)의 연구에서는  $\alpha = .91$ 로 보고되었고, 본 조사에서는 Cronbach's  $\alpha = .97$ 이었다.

### 3) 돌봄행위에 대한 기대감

가족원의 돌봄행위에 대한 내용은 선행연구(최,

1990, 고, 1995, 조, 1992, 한과 김, 1994, 성, 1994, 이, 1996, 남, 1992, Wasten, 1988, Leininger, 1981)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제작한 16개항의 질문지로서 물리적 돌봄행위 8문항과 사회심리적 돌봄행위 8문항으로 분류하여 4점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으면 기대감정도가 높은 것이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1$ 이었다.

###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1996년 12월 16일 ~ 24일까지 9일간이었다. 자료수집방법은 조사원 2명에게 연구목적 및 조사방법과 유의사항을 교육한 후 연구자에게 시범을 보이게 하였다. 조사원은 종합병원의 일반내·외과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노인환자를 담당할 수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상자를 소개받고 연구목적을 설명한 다음 보호자인 가족원은 면담하는 동안 자리를 비우게 하고 연구대상자인 노인환자와의 단독 면담에 의한 질문지 조사를 하였다.

###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병적 특성은 백분율을 사용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병적 특성과 관련된 기대감 정도 그리고 돌봄행위내용에 따른 기대감 정도, 일상생활활동 능력에 따른 기대감 정도, 감정교류정도에 따른 기대감 정도는 평균 및 표준편차로 알아보고, 기대감에 영향을 주는 제 변수들과의 관계는 t 혹은 F검정을 이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노인환자의 일반적 특성 및 병적 특성

<표 1>과 같이 입원한 노인의 52%가 여자였고, 연령의 65~74세가 73.5%, 종교를 갖고 있는 대상자가 63.7%로 과반수 이상을 나타냈고, 학력이 없는 대상자가 53.9%, 국졸이 32.4%로서 현 노인들의 과거의 교육수준을 되돌아 볼 수 있었다.

노인환자의 자녀수는 4명이상이 67.6%로 국가의 산아제한 정책이전의 전 근대적인 세대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반면에 가족구성 형태는 과반수이상인 62.7%가 핵가족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환자의 57.8%는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었고, 동거형태는 부부가 동거하는 경우는 35.3%로 가장 많았고, 아들과 함께 30.4%, 혼자 살고 있는 경우 20.6%의 분포를 보였다.

월 용돈은 지급하는 경우가 38.2%로 가장 많았는데, 본 연구 대상자의 65세~75세가 73.5%인 것을 감안할 때 거의 절반 가량이 자녀로부터 용돈을 받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3만원 이하 24.5%, 4~9만원 12.7%, 10만원 이상이 24.5%로 3만원 이하와 10만원 이상이 대조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는 원(1994)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와는 월 용돈이 10만원 미만 39%, 10~20만원 29.4%, 20~30만원 15.0%, 30만원 이상 16.5%와 비교할 때 지방과 수도권 노인의 월 용돈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신과 서(1994)는 건강이 좋으며 용돈을 많이 쓰는 노인이 성인 자녀와의 만남이나 도움주고 받기의 관계를 활발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까지 노인의 사회복지차원의 연금제도가 확실치 않는 우리나라에서 경제력이 없는 노인은 자녀의 용돈이 대단히 중요한 노인 복지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입원전 가입단체는 종교단체가 40.2%로 가장 많고, 노인정 17.6%, 친목회 9.8%였고, 어느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은 대상자가 32.4%나 되었는데, 이것 역시 신과 서(1994)의 연구에서는 교회나 노인당, 취미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활하는 노인이 자녀와 가치관의 일치를 더 많이 느끼고 자녀로부터 애정, 존중, 신뢰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노인들의 활동을 더 많이 권장할 필요가 있겠다.

돌봄담당자로는 배우자가 46.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딸 20.6%이고, 며느리는 7.8%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이는 서와 오(1993)의 연구에서 만성질환자의 돌봄담당자의 과반수(50.9%)가 배우자로 가장 많은 것과 홍(1982)이 입원 경험이 있는 노인이 보살핌을 받고 싶었던 가족대상이 배우자(41.9%)가 가장 많이 분포였던 것을 볼 때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었으나 배와 홍(1995)의 거동불편 노인의 가족간병인에서는 딸며느리가 40.1%였다는 것과는 상이한 결과였다.

노인환자의 일상생활 활동능력은 의존이 13.7%, 부분 의존이 40.2%, 독립이 46.1%로 일상생활활동의 많은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는 적은 분포를 보였다.

<표 1> 노인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병적 특성

					(N : 102)										
특	성	구	분	실수	백	분	율	특	성	구	분	실수	백	분	율
성	별	남		49	48.0	혼	자	21	20.6						
		녀		53	52.0			기	타	10	9.8				
연	령	65~74세		75	73.5	월	용	돈	3만원 이하	25	24.5				
		74~84세		27	26.5				4~9만원	13	12.7				
10만원 이상	25	24.5													
종	교	유		65	63.7	자	급	39	38.2						
		무		37	36.3	가	입	단	체	노인정	18	17.6			
교육	정	도	무 학	55	53.9					친목회	10	9.8			
			국 졸	33	32.4					종교단체	41	40.2			
			증졸이상	14	13.7					기	타	33	32.4		
자	녀	수	1~2	14	13.8	돌	봄	담	당	가	자	배우자	47	46.1	
			3~4	19	18.6							아	들	13	12.7
			4 이상	69	67.6							딸	21	20.6	
며	느	리	8	7.8											
기	타	13	20.5												
가	족	구	성	핵가족	64	62.7	진	단	명	신생물	12	11.8			
				확대가족	38	37.3				내분비, 대사질환	10	9.8			
배	우	자	유	59	57.8	심혈관 질환	5	5.0							
			무	43	42.2	호흡기계 질환	14	13.7							
동	거	형	태	아	들	31	30.4	소화기계 질환	15	14.7					
				딸	4	3.9	비노생식기계 질환	9	8.8						
				부	부	36	35.3	근골격계 질환	10	9.8					

특 성	구 분	실 수	백 분 율	특 성	구 분	실 수	백 분 율	
입 원 기 간	증상징후 및 불명확한 병태	7	6.9	입 원 경 험	무	88	86.3	
	손상	20	19.6		유	75	73.5	
	1주 이내	35	34.3		무	27	26.5	
	1~2주	25	24.5		일 상 생 활 활 동 능 력	의존	14	13.7
	2~3주	19	18.6			부분의존	41	40.2
3주 이상	23	22.50	독립	47	46.1			
합 병 증	유	14	13.7					

## 2. 노인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병적 특성에 따른 돌봄행위에 대한 기대감 정도

노인환자가 가족원의 돌봄행위에 대한 기대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고 4점에서 최저 1점을 기준으로 평균을 알아본 결과 <표 2>와 같이 기대감의 정도가 높은 집단은 남자 대상자, 75~84세 연령군, 종교가 없는 집단, 자녀가 많은 대상자, 핵가족 형태와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 부부가 동거하는 대상자, 자녀에게 받는 용돈이 3만원 이하의 대상자, 친목회에 가입한 대상자, 돌봄담당자가 배우자인 경우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여기에서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 부부가 동거하는 대상자, 돌봄담당자가 배우자인 대상자에서 돌봄행위에 대한 기대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개별적인 자아로 만난 부부가 평생을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살면서 공동으로 쌓아온 역할에 대한 상호협조와 상호의존

이 입원이라는 분리환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일반적인 특성에서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교육정도에서 무학(2.98), 국졸(2.91), 중졸 이상(2.77)의 순으로 교육정도가 낮을 수록 돌봄행위에 대한 기대정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김 등(1996)이 노인환자의 의존성의 정도에 대한 연구에서 교육정도가 낮을 수록 의존성의 정도가 높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최(1996)는 일부지역 노인의 소진경험정도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의 학력이 낮을 수록 소진경험이 높다는 결과도 있었다.

노인환자의 병적 특성별로 기대감정도를 알아보면 비뇨생식기질환(3.10), 소화기질환(3.05), 심혈관질환(3.03) 대상자 순으로 돌봄행위에 대한 기대감정도가 높았고, 입원기간이 1주 이내, 합병증이 있는 대상자, 입원경험이 있었던 대상자에게 기대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2> 노인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병적에 따른 돌봄행위에 대한 기대감 정도

(N : 102)

특 성	구 분	평 균	표 준 편 차	t or F	P
성 별	남	2.93	.30	.16	.870
	녀	2.92	.26		
연 령	65~74세	2.92	.29	- .34	.736
	74~84세	2.94	.26		
종 교	유	2.92	.30	- .22	.824
	무	2.94	.21		
교 육 정 도	무 학	2.98	.29	3.19	.0454*
	국 졸	2.91	.22		
	중졸이상	2.77	.34		
자 녀 수	1~2	2.28	.20	1.02	.3632
	3~4	2.94	.31		
	4 이상	2.94	.29		
가족구성형태	핵가족	2.93	.30		
	확대가족	2.92	.26		

특 성	구 분	평 균	표 준 편 차	t or F	P																																																																																																																																		
배 우 자	유	2.94	.29	.39	.698																																																																																																																																		
	무	2.91	.27			동 거 형 태	아 들	2.95	.26	2.34	.0601	딸	2.87	.36	부 부	3.01	.27	혼 자	2.81	.23	기 타	2.81	.36	월 용 돈	3만원이하	2.98	.26	.042	.7373	4~9만원	2.87	.30	10만원이상	2.93	.37	자 급	2.91	.22	가 입 단 체	노인정	2.92	.32	.06	.9789	친목회	2.96	.48	종교단체	2.92	.24	기 타	2.93	.23	돌봄담당자	배우자	2.96	.23	.33	.8568	아 들	2.95	.38	딸	2.90	.32	며느리	2.88	.33	기 타	2.88	.25	진 단 명	신생물	2.90	.15	1.72	.1027	내분비, 대사질환	2.81	.25	심혈관 질환	3.03	.32	호흡기계 질환	2.91	.20	소화기계 질환	3.05	.18	비뇨생식기계 질환	3.10	.38	근골격계 질환	3.00	.35	증상정후 및 불명확한 병태	2.77	.97	손 상	2.84	.29	입 원 기 간	1주 이내	2.94	.28	.12	.9439	1~2주	2.90	.25	2~3주	2.94	.30	3주 이상	2.92	.30					합 병 증	유	2.95	.30	.26	.796	무	2.92	.28	입 원 경 험	유	2.95	.26	1.22	.229
동 거 형 태	아 들	2.95	.26	2.34	.0601																																																																																																																																		
	딸	2.87	.36																																																																																																																																				
	부 부	3.01	.27																																																																																																																																				
	혼 자	2.81	.23																																																																																																																																				
	기 타	2.81	.36																																																																																																																																				
월 용 돈	3만원이하	2.98	.26	.042	.7373																																																																																																																																		
	4~9만원	2.87	.30																																																																																																																																				
	10만원이상	2.93	.37																																																																																																																																				
	자 급	2.91	.22																																																																																																																																				
가 입 단 체	노인정	2.92	.32	.06	.9789																																																																																																																																		
	친목회	2.96	.48																																																																																																																																				
	종교단체	2.92	.24																																																																																																																																				
	기 타	2.93	.23																																																																																																																																				
돌봄담당자	배우자	2.96	.23	.33	.8568																																																																																																																																		
	아 들	2.95	.38																																																																																																																																				
	딸	2.90	.32																																																																																																																																				
	며느리	2.88	.33																																																																																																																																				
	기 타	2.88	.25																																																																																																																																				
진 단 명	신생물	2.90	.15	1.72	.1027																																																																																																																																		
	내분비, 대사질환	2.81	.25																																																																																																																																				
	심혈관 질환	3.03	.32																																																																																																																																				
	호흡기계 질환	2.91	.20																																																																																																																																				
	소화기계 질환	3.05	.18																																																																																																																																				
	비뇨생식기계 질환	3.10	.38																																																																																																																																				
	근골격계 질환	3.00	.35																																																																																																																																				
	증상정후 및 불명확한 병태	2.77	.97																																																																																																																																				
	손 상	2.84	.29																																																																																																																																				
입 원 기 간	1주 이내	2.94	.28	.12	.9439																																																																																																																																		
	1~2주	2.90	.25																																																																																																																																				
	2~3주	2.94	.30																																																																																																																																				
	3주 이상	2.92	.30																																																																																																																																				
합 병 증	유	2.95	.30	.26	.796																																																																																																																																		
	무	2.92	.28																																																																																																																																				
입 원 경 험	유	2.95	.26	1.22	.229																																																																																																																																		
	무	2.86	.33																																																																																																																																				

### 3. 가족원의 돌봄행위에 대한 내용별 기대감정도와 순위

노인환자가 가족원의 돌봄행위에 대한 기대감정도는 <표 3>과 같이 전체적인 기대감 정도는 최고 4점에서 최저 1점을 기준으로 평균 2.93, 표준편차 .28로

중등도이상의 기대정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물리적 돌봄행위의 기대감 정도(평균 2.83, 표준편차 .34)보다 사회심리적 돌봄행위에 대한 기대감정도(평균 3.02, 표준편차 .31)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순위별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을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려 준다", "방문하여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의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순위는 "얼굴, 손, 발을 닦아주고 로션도 발라준다", "머리를 빗어주고 옷매무시도 바로 해 준다"로서 물리적인 돌봄행위에 대한 기대정도가 낮았다. 이는 김 등(1996)의 연구결과 신체적 의

존성보다 사회심리적 의존성이 높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존경은 수단이 아니고 태도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노인이나 노인환자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쓸모없는 노인이라는 서글픔과 소외감에서 벗어나 인격체로서 존경받는 인간 존엄성에 있음을 재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사려된다.

〈표 3〉 가족원의 돌봄행위의 내용별 기대감도와 순위

구분	내 용	평 균	표준편차	순 위
물 리 적	머리를 빗어주고 옷매무시도 바로 해 준다.	2.62	.67	15
	얼굴, 손, 발을 닦아주고 로션도 발라준다.	2.57	.68	16
	간식거리를 자주 권한다	2.76	.53	13
돌 봄 행 위	평소에 즐기던 음식을 해준다.	2.83	.50	12
	방문하여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3.08	.59	3
	T.V를 켜주거나 라디오를 듣게 해 준다.	3.02	.54	8
	누운자리의 흠이불을 정리해 준다.	2.87	.53	11
	필요한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2.93	.47	10
물리적 돌봄행위의 기대감도		2.83	.34	
사 회 심 리 적	나와 눈을 맞추며 이야기한다.	3.02	.39	7
	나의 문제를 기꺼이 이야기한다.	3.04	.49	5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	3.18	.41	1
	내가 요구하는 일은 일단 들어준다.	3.03	.48	6
	내가 잘못들으면 다시 설명해 준다.	2.68	.61	14
돌 봄 행 위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3.11	.58	2
	손자, 손녀가 방문한다.	3.07	.67	4
	밤에 편안히 자는지 물어본다.	3.01	.55	9
사회심리적 돌봄행위의 기대감도		3.02	.31	
전 체 기 대 정 도		2.93	.28	

#### 4. 노인환자의 일상생활 활동 수준에 따른 돌봄행위에 대한 기대감 정도

노인환자의 일상생활 활동을 의존, 부분의존, 독립 수준에 따라 돌봄행위에 대한 기대감 정도를 알아 본 결과 부분 의존수준의 대상자가 기대감정도(평균 2.98, 표준편차 .17)가 의존이나 독립수준의 대상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4). 이러한 결과는 노인환자는 일상생활 활동능력수준과는 관계없이 돌봄행위에 대해 공통적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표 4〉 노인환자의 일상생활 활동수준에 따른 돌봄행위 기대감 정도

일상생활 활동수준	평균	표준편차	F	P
의 존	2.91	.30	1.18	.3109
부분의존	2.98	.17		
독 립	2.89	.34		



### 5. 노인환자와 가족원의 감정교류정도에 따른 돌봄행위의 기대감 정도

〈표 5〉에서와 같이 감정교류정도와 기대감은 전체적으로 유의한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노인환자가 가족원과의 감정교류정도가 높은 경우 물리적 돌봄행위에 대한 기대감정도가 높은 편이었고, 사회심리적 돌봄행위에서는 감정교류정도가 보통이라고 지각한 노인환자에서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가족원과 감정교류가 낮은 노인환자는 돌봄행위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성격,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변화로 인한 다각적인 특성상 가족간의 감정교류의 정도와는 관계없이 돌봄행위의 기대감은 누구나 지니고 있다고 본다.

〈표 5〉 노인환자와 가족간의 감정교류정도에 따른 돌봄행위의 기대감 정도

감정교류	물리적 돌봄행위		사회심리적 돌봄행위		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낮 다	2.75	.33	2.83	.31	2.93	.28
보 통	2.73	.29	3.06	.40		
높 다	2.86	.35	3.03	.28		
	F = 1.43 P = .2436		F = 1.89 P = .1561		F = 1.43 p = .2436	

## V. 결 론

본 연구는 입원한 노인환자가 가족원의 돌봄행위에 대한 기대감의 기초자료로서 입원노인을 돌보는 가족원 뿐만아니라 간호사의 노인 돌봄 업무에서 간호중재에도 도움이 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전주시내 2개 종합병원에 입원한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1996년 12월 16일부터 24일 까지 적절하게 응답한 102명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21문항과 돌봄과 관련된 노인환자의 일상생활활동 능력은 이와 서(1994)가 수정한 14개항의 도구를 이용하였고 감정교류정도 15문항은 양(1995)이 번역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돌봄행위에 대한 기대감은 선행연구를 기초로하여 연구자가 제작한 16문항의 질문지로서 물리적 돌봄행위 8문항과 사회심리적 돌봄행위 8문항으로 분류하였다. 총 60문항의 질문지를 제작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

료는 SPSS를 이용하여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최대와 최저값 그리고 t-test, ANOVA 등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교육정도에서 무학(2.98), 국졸(2.91), 중졸 이상(2.77)의 순으로 교육정도가 낮을 수록 돌봄행위에 대한 기대정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2. 노인환자가 가족원의 돌봄행위에 대한 기대정도는 최고 4점에서 최저 1점을 기준으로 평균 2.93, 표준편차 .28로 중등도이상의 기대정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물리적 돌봄행위의 기대감정도(평균 2.83, 표준편차 .34)보다 심리적 돌봄행위에 대한 기대감정도(평균 3.02, 표준편차 .31)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3. 노인환자의 일상생활 활동을 의존, 부분의존, 독립수준에 따라 돌봄행위에 대한 기대감정을 알아 본 결과 부분의존 수준의 대상자가 기대감 정도(평균 2.98, 표준편차 .17)가 의존이나 독립수준의 대상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노인환자가 가족원과의 감정교류 정도가 높은 경우 물리적 돌봄행위에 대한 기대감 정도가 높은 편이었고, 사회심리적 돌봄행위에서는 감정교류 정도가 보통이라고 지각한 노인환자에서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가족원과 감정교류가 낮은 노인환자는 돌봄행위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감정교류정도와 기대감 간의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 참 고 문 헌

- 고성희(1995). 노인의 민간 돌봄에 관한 연구-중국 연변지역 조선족을 중심으로 -대한간호, 34(3), 69-84.
- 고영복(1985). 한국에서의 노인문제. 대한간호, 24(2), 9-11
- 김강미자(1996). 입원노인을 돌보는 가족원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기본간호학회지, 3(2), 247-257.
- 김기미, 김현경(1996). 노인환자의 의존성과 가족지지의 관계연구. 성인간호학회지, 8(1), 110-123.
- 김상규(1983).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아산사회복지재단.
- 김애정, 최영희(1990). 간호사와 환자의 상호작용에서

- 환자가 인지하는 간호(돌봄)개념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2권, 52-74.
- 김조자(1992). 임상간호학 I - 성인간호학-대한간호협회.
- 남정자(1992). 노인환자들의 의존성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배옥현, 홍상욱(1995). 거동불편 노인가족의 가족자원과 부담감이 스트레스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5(1), 91-103.
- 변영순, 김남선(1989). 돌봄개념의 의미에 관한 연구, 간호과학, 이화여자대학교, 제 1권, 84-95.
- 서미혜, 오가실(1993). 만성질환자 가족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23(3), 467-486.
- 성규탁(1994). 현대 한국인이 인식하는 효:척도와 차원, 한국노년학, 14(1), 50-68.
- 신효식, 서명숙(1994). 노부의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자아존중감, 심리적 손상간의 인과모형, 한국노년학, 14(2), 121-132.
- 양영희(1994). 만성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돌봄의 상황과 가족원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성인간호학회지, 7(1), 85-105.
- 윤진(1985). 성인노인심리학, 적성출판사.
- 원형중(1994). 여가활동 참여가 수도권 거주 노인의 고독감, 여가만족,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4(2), 90-104.
- 이병숙(1996). 돌봄의 개념분석, 간호학회지, 26(2), 337-344.
- 이숙자, 장성욱(1995). 간호학에서의 돌봄, 저지, 간호 상황에 관한 내용분석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7(2), 279-298.
- 이영신, 서문자(1994). 입원환자 가족원의 부담감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논문집, 8(1), 17-32.
- 이응, 백감수(1988). 국어대사전, 교육도서.
- 이희승(1982).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 임영신(1993). 노인환자 가족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5(2), 164-172.
- 조명옥(1992). 전통사회의 노인을 위한 돌봄행위에 관한 문화기술적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병은(1990). 부모자녀간의 결속도와 노부모 인생만족도, 한국노년학, 14(1), 95-172.
- 조유향(1989). 노인간호, 현문사.
- 최귀윤(1996). 일부 지역노인의 소진경험 정도와 대처 유형, 성인간호학회지, 8(2), 350-360.
- 최영희(1990). 한국의 전통문화와 돌봄, 간호학의 정립과 한국전통문화Ⅲ,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연구소 심포지움.
- 최정혜(1994).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노부모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4(2), 25-36.
- 한은주, 김태현(1994).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부양만족도와 부양부담도, 한국노년학, 14(1), 95-115.
- 홍종순(1982). 노인의 간호기대에 관한조사, 대동간호전문대학 논문집, 제 2호, 87-96.
- Beivis, E.O.(1981). Caring: A Life Forces in Leininger M. (1981) Caring: An Essential Human Need, Charles B. Slack, Inc., New Jersey.
- Medley, M. L.(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Years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31, 448-454(한은주, 김태현, 1994, 재인용).
- Leininger, M. M.(1981). The Phenomenon of Caring: Importance, Research, Questions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 Caring: An Essential Human Need, Detroid: Wayne State Uni Press.
- Leininger, M. M.(1988). The Phenomenon of Caring: Importance, Research, Questions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 Caring: An Essential Human Need, Detroid: Wayne State Uni Press.
- Wasten, J.(1988). Nursing: Human Science & Human Care, A Theory of Nursing. National League for Nursing. New York.

<Abstract>

# A Study of the Levels of Family Care-Giving Expected by Elderly In-Patients

Kim, Kang Mi Ja, Chung, Yeo Sook  
(The Margaret Pritchard Junior College of Nursing)

This study of elderly in-patient subjects' expected level of care given by family members and nurses is intended to provide foundational information for use by nurses is attending to elderly patients.

The objects of the study were elderly in-patients over the age of 65 hospitalized at two General hospitals in Chonju; 102 subjects filled out the 60 question survey between December 16 and 24, 1996.

The analysis process was conducted using SPSS producing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maximum and minimum values, t-test, ANOVA, and so 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From the general results of the survey, one can observe tha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ppeared in various levels of education of the subjects: no education(2.98), primary school completed(2.91), middle school or higher completed(2.77). As shown, the lower level of education correlates with higher care-giving expectation.

2. On a scale of 1(minimum) to 4(maximum), the mean levels of care expected by elderly in-patients from their families is 2.93, with a standard deviation of 0.28. The level of psychological care expected(mean 3.02, standard deviation 0.31) is higher than the level of care expected(mean 2.83, standard deviation 0.34).

3. The level of care expected among those of different levels of dependency for daily living (differentiated as dependent, partially dependent, independent) was highest among the partially dependent(mean 2.98, standard deviation 0.17), but the result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4. Elderly in-patients with high levels of emotive interaction with their families expected relatively high levels of physical care, while the highest levels of socio-psychological care were expected from those who reported normal levels of emotive interaction with their families. However, We can see that low levels of care are expected from those reporting low levels of emotive interaction with their families. Overall, th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care expected between those reporting different levels of emotive interaction with their families was not shown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